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 수용성의 조절효과\*

##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Acceptance o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석 사 박 은 희\*\*

교 수 정 혜 정\*\*\*

강 사 이 주 연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 : Park, Eun-Hee

Professor : Chung, Hye-jeong

Instructor : Lee, Ju-Yeo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al acceptance on psychological adjustments(self-esteem, depressive mood).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with 55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rparental conflicts, parental accepta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s according to adolescents' sex and perceived level of living standard. Second, interparental conflic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ental acceptance and self-esteem, and were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ve mood. Parental accept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and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mood. Third,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oth indices of psychological adjustments(self-esteem and depressive mood) were influenced by sex, perceived level of living standard, and parental acceptance. Specifically, the most powerful variable affecting psychological adjustments was parental acceptance. Finally, the parental acceptance moderated the influence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the adolescent self-esteem.

---

▲주요어(Key Words) : 부모간 갈등(Interparental Conflict), 부모 수용성(Parental Acceptance),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 Self-esteem, Depressive mood)

### I.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변화와 시련의 시기이며 정서적 동요가 큰 시기일 뿐 아니라 학업부담이 큰 청소년들에게는 스트레스

가 비교적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기 동안의 스트레스 경험은 성인의 그것보다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가정환경은 청소년 시기에 특히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의 정서적인 분위기나 크고 작은 문제 등 가정 내에서 겪는 경험들은 한창 민감한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류승희, 2000).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 박은희 (E-mail : baguni34871@hanmail.net)

\*\*\* 교신저자 : 정혜정 (E-mail : chunghj@jnu.ac.kr)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하는 부정적 경험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간 갈등(성선진·이재신, 2000; 이은아, 2000)이다. 부모간 갈등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부모 이혼의 가장 큰 원인(86%)으로서(통계청, 2006), 그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원이자 정서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간 갈등을 자주 목격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며, 이러한 심리상태가 지속되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성선진·이재신, 2000; 이은아, 2000). 경험적 연구에서도 부모간 갈등은 자녀들의 불안,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지표로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Alessi & Hearn, 1984; Davidson, 1978; Gleason, 1995; O'Keeffe, 1994, 권정아, 2002 재인용).

부모간 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부모간 갈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고, 심리적으로 동일한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몇 연구자들(Graham-Bermann, 1998; Rutter, 1985; Werner, 1990)은 부모간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60~80%가 발달적 손상을 입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부모간 갈등에 노출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모간 갈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의 수용성은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Hetherington, Cox, & Cox, 1982; Petti, Bates, & Dodge, 1997; Simons, Johnson, Beaman, Conger, & Whitbeck, 1996). 즉,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애정을 빈번하게 표현하며 자녀의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녀가 그 태도를 수용적으로 받아 들이나 혹은 거부감을 느끼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은 달라질 수 있다(권정아, 2002; 김애경, 2002; 성선진·이재신, 2000; 전수정, 2003; 천상호, 2000)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이 부모간 갈등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부모의 수용성이 높을 경우 자녀의 심리적 적응은 크게 손상을 받지 않는 반면, 부모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지 못하고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이면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간 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간 갈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 수용성이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지 여부, 다시 말하여 조절효과를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있어서 부모 수용성의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부모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일반 청소년에게 적용해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부모간 갈등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청소년 상담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갈등관계에 있는 부부를 위한 교육과 부모교육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 심리적 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 심리적 적응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은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수용성은 부모간 갈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주요 개념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 및 심리적 적응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간 갈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물리적, 신체적 공격을 포함하는 심한 몸싸움에 이르기까지의 다툼을 의미하는 가족 갈등의 하위 개념으로서, 자녀의 입장에서 본 부부간 갈등으로 정의된다. 갈등이란 두 개 이상의 대립하는 충동이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함을 느끼는 상태(류승희, 2000)로 부모간 갈등은 자녀의 입장에서 관찰 가능한 것이고, 부모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며(이민식, 1999), 청소년 자녀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주요한 스트레스원이 된다(이경주, 1997). 부모간 갈등이 너무 빈번하고, 강도가 심하며,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가족 내 긴장감과 가족원간의 갈등이 계속 되지만(현명호·최문선, 2002; Grych & Fincham, 1990),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목격했거나 해결됐다는 것을 전해들은

경우에는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된다(Cummings, Simpson & Wilson, 1993). 이는 부모간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간 갈등이라는 자극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적응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Grych, & Fincham, 1990)을 시사한다.

부모 수용성은 자녀의 입장에서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이 보편적으로 수용적인 정도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반응과 애정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따스한 보살핌인 양육의 개념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인 양육태도의 개념을 포함하고 온정, 지지, 사랑, 애정 등의 표현으로 불리우기도 한다(류승희, 2000). 부모-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동시에 매우 복잡한 심리·사회적 관계로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성 등을 획득하는 사회화 과정 등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중에서도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의 수용성은 청소년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이정옥, 2004).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 비해 초기 부모-자녀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예, 부모의 거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 부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Rossi & Rossi, 1990)를 볼 때 부모 수용성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녀의 부적응을 경감, 완충시키는 핵심역할로 인식되고 있다(김애경, 2002).

심리적 적응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마찰 없이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등의 지표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인 동시에 욕구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이재, 1999)인 반면, 부적응이란 개인의 적응을 방해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양돈규, 1997).

심리적 적응의 중요한 지표로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특히 청소년들의 능력 발휘, 대인관계 유지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심리적 적응을 위한 중요한 지표이다(박선영·도현심, 1998; 전수정, 2003; 최규련, 1999; Coopersmith, 1967). Rosenberg(1985)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Coopersmith(1976)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의 환경에서 주위 사람들(예, 부모, 교사, 친구)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Harter(1983)는 자신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간다

고 하였다(성선진·이재신, 2000).

심리적 적응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인 우울감(depressive mood)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상태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장애 현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김성일·정용철, 2001). 우울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이르러 그 발생 빈도와 심각성이 크게 증가하고,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최인실, 2004). 청소년의 우울은 가족구성원의 낮은 자아존중감, 부모간 갈등, 부모의 별거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 부모의 사망, 가정의 빈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 가정의 애정적 지지,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등을 통해 우울을 억제 및 감소시키기도 한다(김성일·정용철, 2001; 안운영, 1998, 최선남·최희선, 1999; 최인실, 2004; Downey & Covne, 1990).

이상의 주요 변인들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변인(예, 성별, 연령, 부모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간 갈등은 청소년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남아는 외화 및 행동적 문제를, 여아는 내면화 문제를 더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박수잔, 1997; 우진영, 1998; 이민식, 1999; Davis, & Cummings & 1994; Grych & Fincham, 1990).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의 직업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간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이것은 부모간 갈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권영옥·이정덕, 1999; 이민식, 1999; 황기섭, 2001)

부모 수용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한다(김성일·정용철, 2001; 이은아, 2000)는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김애경, 2002; 이민식, 1999)로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수용성을 높게 지각하고(문혁준, 2001; 이광자, 1998; 이미령, 1996), 부모 직업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은아, 2000).

자아존중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거나(이혜숙, 1999),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김양숙, 1995; Coopersmith, 1975; Rosenberg, 1979)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이혜숙, 1999).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경제수준이 높고, 부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울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며(김미영·강윤주, 2000; 김은경·오경자, 1992),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의 빈도와 정도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김성일·정용철, 2001; Peterson, Sarigiani, & Kennedy, 1991),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특히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일 · 정용철, 2001; 최선남 · 최외선, 1999; 최인실, 2004).

## 2.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우선 부모간 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가 관계 맺는 최초의 대상으로서 부모간 갈등은 자녀의 공격성, 행동 문제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이민식, 1999; 최선남 · 최외선, 1999; Davies & Cummings, 1994). 즉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이 있었고(김애경, 2003; 박선영 · 도현심, 1998), 우울감과 정적 상관관이 있어서(양돈규, 1997; 이민식, 1999), 자녀가 부모간 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더 낮았고, 우울감은 더 높았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일수록 자녀가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주관적인 우울감과 행동문제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소향, 1994; 박수잔, 1996). 특히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부모간 갈등이 청소년의 우울 발생을 일으키는데 강력한 요인이라고 예견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정의 측면 중 하나가 부모간 갈등이라고 하였다(박선영 · 도현심, 1998). 한편, 부모의 이혼보다도 이혼 전후의 부모간 갈등이 자녀의 부적응과 더 큰 연관이 있는 것(주소희 · 조성우, 2004; Vandewater & Lansfore, 1998)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간 갈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부모의 결혼관계가 해체되는 경우보다 자녀의 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모 수용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 때 자녀의 도덕적 추리 능력, 지적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로 인해 자녀는 협동적, 우호적이고 정직하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 도덕성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공격성, 비행 등 자녀의 외현적 문제를 유발 지속시키고, 수동성, 우울, 불안이나 자아존중감 저하와 같은 내재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애경, 2002; 이정옥, 2004; 천상호, 2000; 홍순혜, 2004; Hetherington & Camara, 1984; Hetherington, Cox, & Cox, 1982; Wasserman, Miller, Pinner, & Jaramill, 1996).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 때(권대희, 2003; Coopersmith, 1981), 자녀에게 애정을 빈번히 표현할 때(성선진 · 이재신, 2000), 중요한 타인으로 어머니와 상호작용이 있을 때(권대희, 2003; 성선진 · 이재신, 2000) 자녀의 자아존

중감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의 관심과 돌봄의 결여(김애경, 2002; Harris, Brown & Bifulco, 1986), 거부적인 양육태도(김애경, 2000; 양돈규, 1997)는 자녀의 우울과 우울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3. 부모 수용성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은 부모간 갈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란 완충요인이라고도 하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설명변수로서, 독립변수 없이도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와 차이가 있다(강병서, 1999). 부모 수용성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잠재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는 완충요인으로 작용한다(박영호 · 김정인, 2000)고 보고되어 왔다. 이를 분석하는데 적용되는 모델은 Cohen과 Wills(1985)가 제안한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 buffering model)로서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간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조절 요인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인데(정연옥 · 이민규, 2006) 이는 주로 부모 양육태도나 행동으로 측정된다. 부모간 갈등으로부터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녀의 부적응 문제를 증가시키는데(김애경, 2003) 이때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Osborne & Fincham, 1996, 이민식 · 오경자, 2000 재인용). 즉, 부모간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수용적으로 대할 경우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적응 정도는 낮아지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 자녀가 경험하는 부적응 정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 또한 부모 수용성은 부모의 결혼상태 여부를 막론하고 자녀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Hetherington & Clingempeel, 1992; Maccoby & Martin, 1983, 정연옥 · 이민규, 2006 재인용) 정상가족이든 부부갈등이 심한 위기 가정이든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Emery, 1982; Jenkins & Smith, 1990, 조미숙, 1999 재인용)고 보고되어 왔다.

국내에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부모 언어학대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임소영, 2006). 또한 비이혼 가정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켰으나 이혼집단에서는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정연옥 · 이민규, 2006)도 보고되었다. 한편 청소년기의 모자관계의 질과 부모간 갈등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Forehand, Wierson, Thomas, Fauber, Amistead, Kempton, & Long, 1991; Summers, Forehand, Amistead, & Tannenbaum, 1998, 정연옥·이민규, 2006 재인용)도 보고된 바 있어서, 부모 수용성의 스트레스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3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으며, 그 가운데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질문지 46부를 제외한 554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고 그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273명(49.4%), 여학생 281명(50.6%)으로 남녀의 비율이 고르게 표집되었으며, 학년은 중학교 2학년 139명(25.2%), 중학교 3학년 141명(25.3%), 고등학교 1학년 134명(24.2%), 고등학교 2학년 140명(25.3%)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부의 학력은 중졸이하 13.6%, 고졸 45.7%, 대졸 31.5%, 대학원 졸업 이상 9.1%로 나타났으며, 부의 직업은 단순노무직 20.5%, 판매·서비스 등 중급직 45.7%, 사무·전문직 33.8%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273 (49.4)	출생 순위	첫 째	263 (47.5)
	여	281 (50.6)		둘째이하	288 (52.3)
학교 급별	중학교	280 (50.5)	가족 형태	확대가족	90 (16.3)
	고등학교	274 (49.5)		핵가족	465 (83.7)
부 연령	45세 미만	161 (32.9)	모 연령	40세 미만	67 (12.9)
	45세~49세	266 (54.3)		40세~44세	281 (53.9)
	50세 이상	63 (12.9)		45세 이상	173 (33.2)
부 학력	중졸이하	73 (13.6)	모 학력	중졸이하	72 (13.6)
	고졸	245 (45.7)		고졸	320 (60.3)
	대졸이상	218 (40.7)		대졸이상	139 (26.2)
부 직업	단순직	110 (20.5)	모 직업	유무	200 (38.1)
	중급직	245 (45.7)		무	325 (61.9)
	사무/전문직	181 (33.8)			
결혼 상태	초혼	466 (84.4)	경제 수준	상	108 (19.9)
	기타*	86 (15.6)		중	302 (55.6)
				하	133 (24.5)

\* 기타 : 별거, 이혼, 재혼, 사별, 기타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 19.9%, 중 55.6%, 하 24.5%로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이라고 지각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 2. 측정도구

##### 1) 부모간 갈등 척도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한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9개 하위척도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갈등을 나타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인 총 19문항만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갈등빈도는 부모 사이에 갈등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측정하고, 갈등강도는 갈등 상황시 감정적, 언어적, 신체적 표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며, 갈등해결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과 갈등 이후에 갈등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해결되는지에 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 2) 부모 수용성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수용성은 Rohner(1984)의 부모 수용성-거부성 척도 (Parental Acceptance - Rejection Questionnaire - Adult Form: PARQ - Adult)를 수정한 수용성 10문항, 거부성 14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볼 때, 부모가 어느 정도 수용적 혹은 거부적인가를 나타내는 문항들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6으로 나타났다.

##### 3) 심리적 적응 척도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의 Self-Esteem Inventory를 사용하여 자신을 긍정하는 문항과 부정하는 문항 각각 5개씩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감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황경순(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우울한 기분

을 경험한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부모간 갈등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모 수용성의 완충효과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심리적 적응 중 우울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간 갈등과 우울감은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이 '상'이나 '중'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 수용성과 자아존중감은 경제수준이 '저'인 집단이 '상'이나 '중'인 집단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부모간 갈등은 부모 수용성( $r=-.50$ )과 자아존중감( $r=-.25$ )간에 부적 상관을 보였던 반면, 우울감과( $r=.31$ )는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간 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 수용성과 자아존중감은 낮게 지각하나, 우울감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수용성은 자아존중감과  $r=.41$ 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우울감과는  $r=-.47$ 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 부모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반면, 우울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적응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및 조절효과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표 2>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M(SD)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	심리적 적응	
				자아존중감	우울감
성별	남	2.59 (.73)	3.78 (.59)	2.87 (.48)	1.96 (.44)
	여	2.59 (.78)	3.87 (.64)	2.79 (.52)	2.06 (.51)
	t 값	.50	- 1.77	1.78	- 2.54*
경제 수준	상	2.38 (.72) b	3.95 (.61) a	2.94 (.51) a	1.98 (.51) b
	중	2.49 (.69) b	3.84 (.58) a	2.85 (.47) a	1.96 (.46) b
	하	2.98 (.77) a	3.68 (.67) b	2.70 (.53) b	2.13 (.48) a
	F 값	27.17***	6.41**	7.61***	6.55**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	자아존중감	M (SD)
부모간 갈등				2.59 (.76)
부모 수용성	-.50***			3.83 (.65)
자아존중감	-.25***	.41***		2.83 (.50)
우울감	.31***	-.47***	-.63***	2.01 (.48)

\*\*\*p < .001

미치는 영향과 부모 수용성의 완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분리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 즉 중재적 중다회귀분석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절차는 독립변인, 중재변인, 그리고 독립변인과 중재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차례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경제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다음으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을 각각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의 상호작용항(즉 부모간 갈등 × 부모 수용성)을 투입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 구성 변인은 회귀분석에 이미 투입된 두 변수(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를 그대로 곱하면 독립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가정에 위배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변수를 편차변환(centering)하여 투입하게 된다. 즉 등간이나 비율척도 수준으로 측정된 연속 독립변수의 경우 상호작용을 표시하는 새 변수는 원 변수들( $X_1, X_2$ )에서 각각의 평균을 차감한 편차점수( $X_1 - X_1$ 의 평균,  $X_2 - X_2$ 의 평균)로 구성한다. 그러면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제거되고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사라진다(신민철, 2007; Aiken & West,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호작용항 변수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 변인을 편차변환한 후 두 변수를 곱해 구성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VIF 값이 1.01~1.59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자아존중감 1.82, 우울감 1.94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 영향력 및 조절효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Model I은 통제변인을, Model II는 부모간 갈등을, Model III은 부모 수용성을 투입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부모 수용성의 완충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인은 자아존중감을 3% 설명하고 성별( $\beta = .10, p < .05$ )과 경제수준( $\beta = .16, p < .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갈등이 추가된 Model II에서는 5%가 증가된 총 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I의 통제변인과 부모간 갈등( $\beta = .22, p < .001$ )이 유의하게 나타나 남학생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을 낮게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했다. Model III에서는 부모 수용성의 추가로 11%의 설명력을 더 갖는 총 19%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통제변인과 부모 수용성( $\beta = .39, p < .001$ )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경제수준과 부모 수용성을 높게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Model IV에서는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1%의 설명력을 더 갖게 되어 총 2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의  $\beta$ 값이  $p < .0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토대로 부모간 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 수용성의 조절효과 양상을 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재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자아존중감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beta$	B	$\beta$	B	$\beta$	B	$\beta$
(통제변인)								
성별 <sup>a</sup>	-.10	-.10*	-.09	-.09*	-.11	-.12**	-.12	-.12**
경제수준 <sup>b</sup>	.19	.16***	.11	.10*	.12	.12**	.12	.11**
부모간 갈등			-.15	-.22***	-.01	-.02	-.01	-.01
부모 수용성					.31	.39***	.34	.42***
부모간 갈등 × 부모 수용성							-.09	-.11**
상수								
F-value								
R <sup>2</sup>								
R <sup>2</sup> - Change								
Durbin-Wat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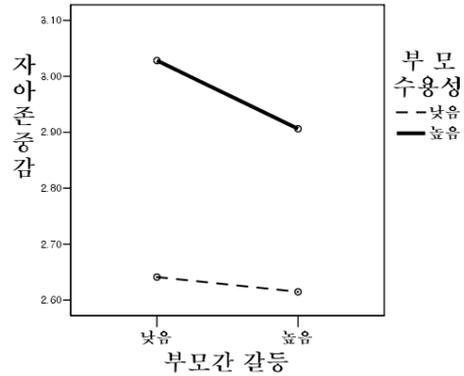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a: 남 = 0, 여 = 1      b: 상류층 · 중류층 = 1, 하류층 = 0

<표 5>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M(SD)	
		부모간 갈등	
		낮음	높음
부모 수용성	낮음	2.64 (.06)	2.62 (.34)
	높음	3.03 (.03)	2.91 (.04)
주효과	부모간갈등	F = 14.70***	
	부모수용성	F = 33.38***	
상호작용	부모간갈등 × 부모수용성	F = 24.63***	

\*\*\*p < .001



<그림 1>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부모수용성의 완충효과

<표 6> 우울감에 대한 중재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우울감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β	B	β	B	β	B	β
(통제변인) 성별a	.12	.13**	.11	.12**	.14	.15***	.16	.15***
경제수준b	-.19	-.17***	-.09	-.08	-.10	-.09*	-.10	-.09*
부모간 갈등			.18	.29***	.04	.06	.03	.05
부모 수용					-.35	-.45***	-.36	-.46***
부모간 갈등 × 부모 수용성							.04	.04
상수	.07		.01		.00		.01	
F-value	10.89***		22.78***		47.13***		37.99***	
R <sup>2</sup>	.04		.11		.26		.26	
R <sup>2</sup> -Change			.07		.15		.00	
Durbin-Watson	1.94							

\*p < .05, \*\*p < .01, \*\*\*p < .001

a: 남=0, 여=1 b: 상류층·중류층= 1, 하류층=0

그 결과는 <표 5>과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와 <그림 1>을 살펴보면, 부모 수용성이 낮은 집단은 부모간 갈등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자녀의 심리적 적응인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는 반면, 부모 수용성이 높은 집단은 부모간 갈등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가파른 기울기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부모 수용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간의 갈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자아존중감이 .12만큼 차이가 있는데 반하여, 부모 수용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간 갈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불과 .02만큼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모간의 갈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 수용성이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부모 수용성이 낮은 사람은 부모간 갈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부모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부모간 갈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우울감에 대한 관련변인 영향력 및 조절효과

역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먼저 통제변인을, 다음으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을 각각 투입한 후, 마지막으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Model I의 설명력은 4%로 성별(β =.13, p<.01), 경제수준(β =-.17,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일 때, 경제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감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에 부모간 갈등을 추가한 Model II의 설명력은 7%가 증가된 총 11%로 나타났으며 성별(β =.12, p<.01)과 부모간 갈등(β =.29, p<.001)이 유의하게 나타나 여자일 때, 부모간 갈등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우울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부모 수용성을 추가한 Model III에서는

15%가 증가한 총 26%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성별( $\beta = .15, p < .001$ ), 경제수준( $\beta = .09, p < .05$ ), 부모 수용성( $\beta = .45, p < .001$ )이 유의하게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인데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 수용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감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의 곱인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Model IV에서는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해 부모간 갈등이 자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 수용성이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이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른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 심리적 적응의 차이, 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부모간 갈등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중 집단인 경우 하집단보다 부모간 갈등을 더 낮게 지각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모간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박수영, 1998; 어유경, 2005)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부모간 갈등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권영옥, 1998; 최인실, 2004)와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간 갈등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들(김혜경, 1987; 이은아, 2000)과는 일치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간 갈등의 차이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은 부모의 학력 및 직업과 연관되는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간 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경제적 결핍관점(Duncan & Hoffman, 1985, 홍순혜, 2004 재인용)을 지지해주고 있으며, 낮은 학력에 따른 부모의 직업은 경제적 위축으로 인해 부모간 갈등을 유발하며 부부간의 안정성을 낮추므로 경제적 결핍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Amato & Keith, 1991, 홍순혜, 2004 재인용)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경제적 위기로 인한 부모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실업,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상호이해, 관계증진, 갈등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모 수용성은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김애경(2002), 이민식(1999)의 연구결과 일치하였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 양육태도를 더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이지운, 2000)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수준

은 상·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부모의 수용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이은아, 2000)와 일치하며 아버지의 수입이 많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은주영, 200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적응 중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전수정(2003), Rosenberg(1979)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거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는 성차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들(이완정, 2001)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권대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심리적 적응 중 우울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선행연구(김은경·박경애, 1999; 어유경, 2005)와 일치하였고, 경제수준은 하 집단이 상·중 집단보다 우울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김성일·정용철, 2001)와 맥을 같이 하나, 경제수준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이은아, 2000)와 일치하지 않았다.

둘째, 부모간 갈등, 부모 수용성,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간 갈등은 부모 수용성 및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우울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간 갈등을 낮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수용성과 자아존중감은 높게 지각하는 반면, 우울감은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간 갈등과 부모 수용성간에 부적 상관(박미령, 2005), 부모간 갈등과 자아존중감간에 부적 상관(김애경, 2003; 정미진, 2005), 부모간 갈등과 우울감간에 정적 상관(심희옥, 1995; 어유경, 2005)을 나타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 수용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우울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 애정 및 신뢰 등을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더 높았던 반면, 우울감은 더 낮았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김애경, 2002; 성선진·이재신, 2000; 이정숙, 1997; Rosenberg, 198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심리적 적응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및 부모갈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수용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수용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 수용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간 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부모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 관심, 인정 등과 같은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김애경, 2002; Coopersmith, 1967, 오현숙, 2000 재인용). 또한 이혼가정 자녀

에게 부모가 수용적인 태도로 앞으로의 일을 설명하면 자녀의 인식을 중재하여 심리적 적응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연구(주소희 · 조성우, 2004)를 볼 때, 부모간 갈등과 가족 해체,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녀의 건전한 발달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간 갈등에 있어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볼 때, 부모자신의 자아존중감 강화 훈련을 통해서 자녀에게 수용적인 태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허용행동의 명백한 한계를 둘 수 있도록 부모역할 훈련을 배울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Coopersmith, 1967). 뿐만 아니라 부모간 갈등 상황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혼 전후 가정의 부모-자녀 교육과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자녀의 부정적인 인식을 중재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우울감은 여학생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 수용성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부모 수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간 갈등이 우울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 수용성은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기의 주요 스트레스와 긴장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부모의 높은 교육적 기대와 학업위주 시스템으로 인해 갖는 다는 점(김예경, 2003; Furman & Buhrmester, 1985)과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61%)가 주된 고민이자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환경은 4.8%에 불과했다(통계청, 2006)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연구결과 이다. 즉 현재 중·고등학생이 자라온 성장환경을 되짚어 보면, 산업화로 인한 가족체계가 변하면서 확대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의 유대가 약화되고, 양육과정에서 정서적 유대가 축소되면서 자연히 우울감이 높아지고 이것은 곧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자기존중감이 저하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성적이 저조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최선남 · 최외선, 1999)를 지지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가족환경보다도 공부가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가족 밖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자녀의 우울증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전영주, 1998)를 볼 때, 청소년의 주된 고민인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상황이 우울감에 더 큰 영향력 있는 변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의 교육적 기대보다 부모 수용성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완충요인으로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으로 심한 스트레스 상황일 때 완충효과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박영호 · 김정인, 2000)로 비추어볼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기의 우울은 단기간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재발을 하거나(어유경, 2005; Emslie, 1989)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Garber, Kriss, Koch, & Lindholm, 1988; Kandel & Davies, 1986, 어유경, 2005, 재인용) 청소년 우울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학교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간 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완충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완충효과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 이혼 가정 집단, 심각한 가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된 고민을 부모간 갈등으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2006)에 따르면 이 시기의 청소년에게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학업 스트레스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부모 수용성의 완충효과를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강병서(1999).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무역경영사.
- 권대희(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 권영옥(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영옥 ·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8(1), 65-80.
- 권영옥 ·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아동학회**, 20(1), 115-133.
- 권정아(2002). **아내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 강윤주(2000). 청소년기 우울 성향과 관련된 요인. **한국학교발전학회지**, 13(2), 261-270
- 김성일 · 정용철(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2(1), 5-27.
-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와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6(3), 31-50.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은경·오경자(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 증상. 소아, **청소년정신의학**, 3(1), 117-118.
- 류승희(2000).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령(2005). **긍정적 자아개념과 관련된 유아용 그림동화책 내용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 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수영(1998). **아동의 부모간 갈등 지각과 대처행동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잔(1997).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김정인(2000).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453-481.
- 성선진·이재신(2000).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22집, 53-70.
- 심희옥(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및 부적응. **한국아동학회지**, 16(1), 89-98.
- 안윤영(1998). **집단정신치료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1997). **부모간 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어유경(2005). **취약한 가족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특성의 보호기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진영(1998).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부갈등, 부모-자녀관계 사이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주영(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식·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9(4), 727-745.
- 이애재(1999). **편부모가족기능 요인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완정(2001).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 및 자아 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49-60.
- 이은아(2000). **청소년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및 행동적 부적응.**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2004). **부모의 갈등과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윤(200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199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고등학교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소영(2006).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정(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정미진(2005). **부모간 갈등,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 부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옥·이민규(2006).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유기공포.** **한국심리학회지**, 11(4), 689-708.
- 조미숙(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주소희·조성우(2004).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215-238.
- 천상호(2000).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자녀 요인,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녀의 우울정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 최선남·최희선(1999). **아동의 우울 정도에 따른 가족환경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0(2), 91-100.
- 최인실(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 성숙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773-791.
- 통계청(2006).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현명호 · 최문선(2002).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5집, 63-94.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호, 151-177.
- 황경순(1998). *청소년의 우울, 가족관계, 대처방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기섭(2001).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정서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essi, J. J., & Hearn, K. (1984). *Group Treatment of Children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In A. R. Roberts(Ed.),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49-61. New York: Springer.
- Cohen, S, & Will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ummings, E. M., Simposn, K. S., & Wilson, A.(1993).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as an function of information about resolu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78-985.
- Davidson, T. (1978). *Conjugal Crime: Understanding and Changing the Wife Beating Pattern*. New York: Hawthorne.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rtion*, 116, 387-411.
- Downey, G., & Cov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itin*, 92, 310-330.
- Forehand, R., Wierson, M., Thomas, A. T., Fauber, R., Amistead, L., Kempton, T., & Long, N.(1991). A short-term longitudinal examination of young adolescent functioning following divorce: The role of family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97-110.
- Furman, W., & Buhrmester, E.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arber, J., Kriss, M. R., Koch, M., & Lindholm, L. (1988). Recurrent depression in adolescents: A follow-up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 49-54.
- Gleason, W. J. (1995). *Children of Battered Women: Developmental Delays and Behavioral Dysfunction*. *Violence and Victims*, 10, 153-160.
- Graham-Bermann, S. A. (1998). *The impact of woman abuse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Research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Edited by Holden G. W., Geffner, R & Jouriles E. 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logical Association. 21-54.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ris, T., Brown, G. W. & Bifulco, A.(1986). Loss of parent in childhood and adult psychiatric disorder: the role of lack of adequate parental care. *Psychological Medicine*, 16, 641-659.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87-116). New York: Plenum.
- Hetherington, E. M., & Carmara, K. A. (1984). Families in transition: The processes of dissolution and reconstitution. In R. D. Parke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 (2-30, Serial No 227).
- Hetherington, E. M., Cox, M., Cox, R. (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dale, NJ: Erlbaum.
- Jenkins, M., & Smith, M. A. (1990). Factors protection children living in dishamonymous homes: maternal repor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182-189.
- Kandel, D. & Davies, M. (1986). Adult sequel of adolescent depressant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4, 255-262.
- Maccoby, E., & Martio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1-101). New York: Wiley.

O'Keefe, M.(1994).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5, 403-415.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 relations: Does gender matter. *Merrill Palmer Quarterly*, 42, 48-75.

Peterso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47-271.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Rohner, R. P. (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University of Connecticut, Center of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Basic Books. NY.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k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Simons,R. L., Johnson, C., Beaman, J., Conger, R. D., & Whitbeck, L. B. (1996). Parents and peer group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community structure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1), 145-171.

Summers, P., Forehand, R., Amistead, L., & Tannenbaum, L. (1998). Parental divorce during early adolescence in Caucasian families: Th role of family process variables on prediction the long-term consequences for early adul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27-336.

Vandewater, E. A., & Lansfore, J. E. (1998).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well-Being, *Family Relations*, 47, 323-330.

Wasserman, G. A., Miller, L. S., Pinner, E., & Jaramillo, B.(1996).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conduct problems in urban high-risk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1227-1236.

Werner, E. E. (199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In Meisels S. J. & Schonikiff (Eds.) J. P.,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tiry press.

- 접수 일 : 2010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10년 09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12일